

2018년 7월 25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상승 트럼프의 무역분쟁 관련 발언으로 장중 한때 상승폭 축소

### 무역분쟁 우려 재차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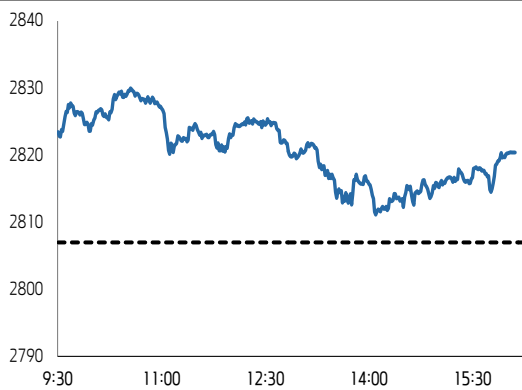
미 증시는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 이후 상승폭 축소되거나 하락 전환. 특히 나스닥은 알파벳 실적에 힘입어 장중 한 때 사상 최고치 경신하기도 했으나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업종별로 보면 제약 바이오, 에너지 업종이 상승한 반면, 반도체, 소매유통업종이 하락하는 등 차별화 장세(다우 +0.79%, 나스닥 -0.01%, S&P500 +0.48%, 러셀 2000 -1.07%)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최고다, 무역에서 미국에 부당한 대우를 한 나라는 협상을 하거나 관세를 물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 이는 미-중, 미-EU 간의 무역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발언 이후 미 증시는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을 축소. 한편, 관련된 발언에 대해 정치 분석가들은 160 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공청회(24~25 일)와 용커 EU 집행위 의장과의 무역협상(25 일)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분석.

더불어 최근 무역분쟁은 트럼프 개인적인 본능에 의존하고 있을 뿐 보좌관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 한편, 미 정부는 무역분쟁이 장기화 되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분야를 위해 120 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발표. 시장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나온 이후 매물이 더욱 유입되는 경향을 보임. 이는 미국 정부가 무역분쟁 장기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을 뿐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음. 무역분쟁이 이어졌음에도 미국 증시는 양호한 실적에 기반해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 더불어 최근 여론 조사 결과(NBC/WSJ) 49%에 달하는 미국민들은 관세가 경제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응답했고, 25%는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점도 주목. 이에 따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극단적인 사태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80.20	+0.48	홍콩항셱	28,662.57	+1.44
KOSDAQ	761.57	+0.61	영국	7,709.05	+0.70
DOW	25,241.94	+0.79	독일	12,689.39	+1.12
NASDAQ	7,840.77	-0.01	프랑스	5,434.19	+1.04
S&P 500	2,820.40	+0.48	스페인	9,773.10	+0.48
상하이종합	2,905.56	+1.61	그리스	750.27	-0.16
일본	22,510.48	+0.51	이탈리아	21,874.69	+1.2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반도체 업종, 무역분쟁 우려로 하락 전환

바이오젠(+4.11%), 일라이릴리(+5.03%)가 양호한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브리스틀마이어스(+4.26%), 존슨앤존스(+2.16%), 애브비(+2.39%) 등 제약주와 셀진(+2.46%), 암젠(+0.75%) 등 바이오업종 또한 상승 했다. 엑손모빌(+1.98%), 셰브론(+2.08%), 코노코필립스(+1.24%) 등 에너지주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알파벳(+3.89%)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페이스북(+1.78%), 아마존(+1.51%) 등도 동반 상승 했다. 버라이즌(+1.50%)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통신업종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유나이티드 항공(-1.90%) 등 항공운송업종은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하락 했다. UNP(-1.70%), CSX(-1.61%) 등 철도 운송 회사들은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 향후 효율성 문제가 부각되며 하락 했다. 마이크론(-2.06%), AMAT(-1.12%), 램리서치(-0.83%) 등 중국 매출이 많은 반도체 관련 일부 업종은 무역분쟁 우려감이 유입되며 하락 전환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92%	대형 가치주 ETF	+0.45%
에너지섹터 ETF	-0.20%	중형 가치주 ETF	-0.26%
소매업체 ETF	-1.64%	소형 가치주 ETF	-0.56%
금융섹터 ETF	+0.29%	배당주 ETF	+0.22%
기술섹터 ETF	+0.55%	변동성 ETF	-1.92%
소셜 미디어업체 ETF	-1.21%	대형 성장주 ETF	+0.33%
인터넷업체 ETF	+0.03%	중형 성장주 ETF	-0.94%
리츠업체 ETF	-0.28%	소형 성장주 ETF	-1.59%
주택건설업체 ETF	-1.73%	신중국 고배당 ETF	+1.19%
바이오섹터 ETF	-0.14%	신중국 저변동성 ETF	+0.86%
헬스케어 ETF	+0.91%	하이일드 ETF	+0.20%
곡물 ETF	-0.34%	물가연동채 ETF	+0.05%
반도체 ETF	-1.25%	Long/short ETF	-0.4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8.48	+1.32%	+0.57%	+2.74%
소재	368.12	+1.30%	-0.22%	+1.90%
산업재	624.67	+0.50%	+0.82%	+3.64%
경기소비재	889.02	-0.28%	-1.12%	+2.48%
필수소비재	540.23	+0.17%	-0.54%	+1.40%
헬스케어	1,014.79	+0.91%	+0.47%	+4.14%
금융	465.17	+0.33%	+1.92%	+4.49%
IT	1,290.00	+0.50%	+0.66%	+5.95%
통신	148.73	+1.76%	-0.25%	+1.67%
유틸리티	264.26	+0.34%	-0.63%	+0.96%
부동산	199.46	-0.31%	-0.88%	+0.0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종목별 차별화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는 1.51% MSCI 신흥 지수도 1.47%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818 계약)에 힘입어 0.65pt 상승한 296.9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6.2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추진과 대북 경험 기대감이 높아지며 철강, 건설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오늘도 한국 증시는 주요 이슈에 반응을 보이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재정정책 확대인데 과거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면 중국의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이 개선되고 이는 한국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무역분쟁에 따른 우려감이 여전하고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감도 높아 투자심리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 그렇지만, 하반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 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늘은 LG 이노텍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어 이들의 결과에 따라 시장 변화 가능성도 높다.

다만, 미 증시가 무역분쟁 이슈가 부각되며 한 때 상승폭을 축소할 점을 감안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160 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 제품 관련 공청회화 미국과 EU 간의 무역분쟁 협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독일 제조업지수 개선

미국 7 월 PMI 제조업지수는 전월(55.4)나 예상치(55.1) 보다 개선된 55.5 로 발표되었다. 다만, 서비스업 PMI 지수는 전월(56.5) 보다 둔화된 56.2 로 발표되었다.

7 월 리치몬드 제조업지수는 전월(21) 보다 둔화된 20 으로 발표되었으나, 예상치(18)보다는 양호한 결과를 발표했다.

7 월 독일 PMI 제조업지수는 전월(55.9) 보다 개선된 57.3 으로 발표 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중국과 이란 이슈에 힘입어 상승

국제유가는 중국의 경기부양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인프라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란과 미국이 원유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무역분쟁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해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달러지수는 양호한 경제지표 결과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이며 출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분쟁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이후 강세폭이 축소되며 약세로 전환 했다. 한편, 유로화도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의 제조업 지표가 개선된 데 힘입어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해 약세로 전환 했다. 엔화는 무역분쟁 이슈가 재차 유입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신흥국 환율을 보면 터키 리라화가 3% 넘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며 우려감이 높아졌다. 중국 역외 위안화를 비롯한 여타 신흥국 환율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양호한 경제지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분쟁 관련 발언과 국채입찰 이후 하락 전환 했다. 2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2.92 배로 12 개월 평균(2.82 배) 보다 상승하는 등 국채 수요 증가 가능성을 보이자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금리는 하락 전환 했다.

금은 달러 강세로 하락 출발 했으나, 달러 강세폭이 축소되자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중국의 인프라투자 적극 추진 발표 이후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74% 상승한 반면, 철근은 0.27%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8.52	+0.93	+2.03	Dollar Index	94.586	-0.05	-0.42
브렌트유	73.44	+0.52	+1.77	EUR/USD	1.1684	-0.07	+0.20
금	1,234.60	+0.02	-0.26	USD/JPY	111.22	-0.12	-1.47
은	15.520	+0.62	-0.62	GBP/USD	1.3146	+0.34	+0.24
알루미늄	2,084.50	+0.75	+2.58	USD/CHF	0.9937	+0.15	-0.64
전기동	6,295.00	+2.69	+2.32	AUD/USD	0.7418	+0.50	+0.39
아연	2,616.00	+2.39	+4.14	USD/CAD	1.3159	-0.10	-0.24
옥수수	366.00	-1.41	+1.74	USD/BRL	3.7452	-1.02	-2.43
밀	510.25	-0.68	+2.51	USD/CNH	6.8066	+0.02	+1.26
대두	873.25	+1.22	+2.10	USD/KRW	1135.20	+0.34	+0.99
커피	110.95	-0.63	+1.56	USD/KRW NDF 1M	1126.23	-0.60	-0.0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949	-0.55	+8.86	스페인	1.368	-0.90	+12.10
한국	2.570	+3.00	+2.00	포르투갈	1.771	+0.50	+4.10
일본	0.086	0.00	+4.30	그리스	3.835	+0.50	+0.70
독일	0.397	-0.90	+5.10	이탈리아	2.680	+4.40	+21.50